

'잠수함' 임기영 KIA·대표팀 두 어깨에 태우고 운명의 항해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의 '잠수함' 임기영이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2018 KBO리그 순위 싸움은 17일 아시안게임 휴식기와 함께 잠시 중단된다. 9월 4일 리그가 재개될 때까지 쉴 수 있는 최대 승수는 3승. KIA는 임기영을 필두로 해 14·15일 LG 트윈스와 홈 2연전을 치른 뒤 16일 사직으로 가 롯데 자이언츠와 휴식기에 앞서 마지막 대결을 한다.

넥센 히어로즈가 창단 최다 연승인 9연승으로 4위를 지키고 있지만, 5-8위는 유동적이다.

LG 트윈스가 8월 1승 9패의 전적으로 4위와 3.5게임 차 5위까지 추락한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가 승차 없는 6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KIA가 1.5게임 차 밖에서 6위 삼성을 올려보고 있다. 뒤에는 롯데가 반 경기 차로 기다리고 있다.

남은 세 경기에서 5-8위 4팀의 자리가 모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KIA, LG와 홈 2연전·롯데 원정 ... 5위와 1게임 반 차 숨가쁜 순위싸움

다음주부터는 금메달 노리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희망의 피칭

일단 KIA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폭발력 떨어진 잇박자의 타선 탓에 고전했던 KIA는 최근 타격 상승세를 타고 있다. SK와의 주말 2연전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을 만들었던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모처럼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 11일 팀 4000홈런의 주인공이 되면서 '한방 침묵'을 깬 이범호가 12일에는 나흘로 3홈런을 터트렸다. 나지완과 버나디나도 '벌티 홈런'으로 호응했고, 이명기도 손맛을 보면서 KIA는 올 시즌 한 경기 팀 최다 홈런(8개) 주인공이 됐다.

KIA는 주말 2연전에서 12개 홈런 포함한 장단 49안타로 39점을 만들면서 귀한 2승을 챙겼다.

긴박한 순위 싸움을 위해 임기영이 마운드 전면에서 선다. 임기영은 14일 LG 김대현과 마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팀은 물론 개인에게도 절실한 승리다. 지난 시즌 우승 공신으로 활약했던 임기영은 어깨 부상 여파로 올 시즌 긴 슬럼프를 겪었다. 두 차례 2군에 다녀오기도 했던 임기영은 아시안게임 대표라는 무거운 짐까지 안고, 부담 많은 시즌을 보내왔다.

두 번째 2군행은 다행히 텅포인트가 됐다. 차분하게 직구를 기다리고 마음의 부담도 내려놓은 그는 지난 7월 31일 복귀전에서 롯데를 상대로 6.1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면서 시즌 6승에 성공했다. 지난 8일 넥센전에서 연승은 달리지 못했지만 5.2이닝 1실점의 안정된 피칭을 했다.

팀 연승은 있고, 열세는 끊어야 한다. 최근 분위기로는 KIA가 우세지만 올 시즌 상대 전적은 7승 5패로 LG가 앞서 있다.

■ KBO 중간순위 (13일 현재)

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연속
1	두산	71	0	39	0.645	0.0	1패
2	SK	61	1	47	0.565	9.0	2패
3	한화	62	0	50	0.554	10.0	2승
4	넥센	59	0	56	0.513	14.5	9승
5	LG	54	1	58	0.482	18.0	2승
6	삼성	53	3	57	0.482	18.0	1승
7	KIA	50	0	57	0.467	19.5	2승
8	롯데	49	2	57	0.462	20.0	1승
9	KT	45	2	63	0.417	25.0	2패
10	NC	46	1	66	0.411	26.0	1패

부라부라 엔트리를 교체하는 등 고민 많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임기영의 컨디션과 자신감이 중요하다.

임기영이 KIA와 대표팀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빅리그 복귀

16일 SF와 경기 선발 등판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마침내 빅리그 마운드에 복귀한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소식을 전하는 MLB닷컴은 13일(이하 한국시간)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말을 인용해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류현진이 복귀해 16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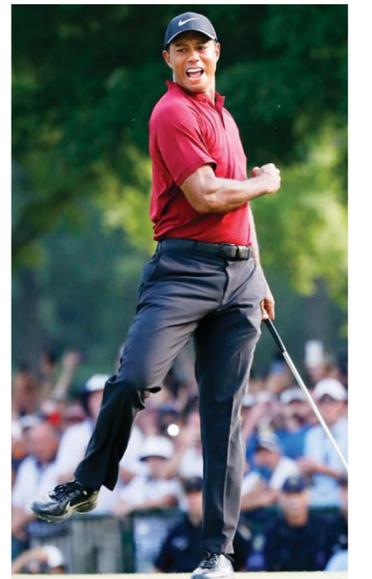
다저스는 이날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4연전을 마치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 14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 3연전을 벌인다.

16일 등판하면 류현진은 105일 만에 다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른다.

다저스와 6년 계약 마지막 해를 보내는 류현진은 시즌 초반 6경기에 등판해 3승, 평균자책점 2.12의 호투를 이어가고 있었다.

MLB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의 복귀로 로버츠 감독은 클레이튼 커쇼, 리지 힐, 워커 블러, 알렉스 우드, 류현진으로 5인 선발 로테이션을 꾸릴 생각이다.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제100회 PG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미국의 타이거 우즈가 18번째 홀에서 버디를 성공시킨 뒤 쾌재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KIA, 내일 LG와 홈경기 광복절 유니폼 입고 뛴다

시구는 독립유공자 손자 신흥수 씨

KIA 타이거즈가 제73회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를 연다.

KIA는 광복절인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 '815 저지'를 입고 경기에 나선다.

태극기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815 저지'는

TIGERS 워드마크 색상을 태극 문양으로 표현하고 배면에 4괘(건곤감리)를 패턴화한 것이 특징이다. 소매에는 태극기 패치를 부착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했다.

'815 야구 모자' 역시 T 로고를 태극 문양으로 표현하고, 청 안쪽에 4괘(건곤감리)를 패턴화했다.

이날 시구는 1919년 장성에서 독립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독립유공자 신대식 선생의 손자인 신흥수

씨가 한다. 애국가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의 베이스 손태진이 부른다.

또 KIA는 이날 경기장 3번 출입구 앞에서 어린이 팬을 대상으로 한 태극기 및 태극 T 로고 페이스 페인팅 행사를 펼친다. 입장객 4000명에게는 태극 T 로고 핀버튼을 나눠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수단이 입는 815 저지(9만9000원)와 모자(3만9000원)는 챔피언스필드 타이거즈숍과 온라인몰(www.tigersshop.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제의 귀환

우즈 PGA 챔피언십 14연타 9년만에 메이저 대회 준우승

'빨간 셔츠의 마법'이 아주 완벽히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골프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기에는 충분했다.

타이거 우즈(43·미국)가 자신의 메이저 대회 최종라운드 최저타 기록을 세우며 9년 만에 메이저 대회에서 준우승했다.

우즈는 13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벨라리브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제100회 PG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6언더파 64타를 기록, 최종합계 14언더파 266타로 단독 2위를 차지했다.

우즈가 메이저 대회에서 준우승한 것은 2009년 이 대회 이후 9년 만이다.

2008년 US오픈 이후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는 우즈는 2009년 PGA 챔피언십 준우승 이후 이 대회 전까지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2년 브리티시오픈 공동 3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우즈는 이번 대회 3라운드까지 선두 브룩스 켈카(미국)에게 4타 뒤진 공동 6위였다.

지난달 브리티시오픈에서도 3라운드까지 선두에 4타 뒤진 6위에서 출발, 최종라운드에서 한타 1위까지 올랐으나 리드를 지키지 못했던 우즈는 이날도 선두를 맹추격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 티셔츠를 입고 나온 우즈는 전반 9개 홀에서 페어웨이 적중률 0%(0/7)를 기록하고도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이는 저력을 발휘했다.

우즈는 "최선을 다했다"며 "잘 안 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최대한 많은 버디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지난달 브리티시오픈에 이어 메이저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 경쟁을 벌인 우즈는 "1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원태·이정후(넥센, 왼쪽부터), 황재균(KT), 장필준(삼성)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에 합류한다고 13일 전했다.

/연합뉴스

이정후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승선

최원태·장필준·황재균과 함께 ... 투수 차우찬·정찬헌, 3루수 최정, 외야수 박건우는 제외

최원태·이정후(이상 넥센), 황재균(KT), 장필준(삼성)이 교체 선수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대표팀을 지휘하는 선동열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13일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선수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수 차우찬과 정찬헌(이상 LG), 3루수 최정(SK), 외야수 박건우(두산) 등 4명을

각각 최원태, 장필준, 황재균, 이정후로 교체했다.

선 감독은 "12일까지 최종 엔트리에 있는 24명은 물론 예비 엔트리에 있는 모든 선수들의 몸 상태를 소속 구단 트레이너들과 상의하며 면밀히 체크했

다. 그 중 차우찬 등 4명은 크고 작은 부상 등이 이어져 아시안게임 개최 시점에 국가대표로서 정상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체를 결정하게 됐다"며 "코칭스태프들과 여러 후보들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몸 상태와 KBO 리그 성적, 컨디션 등을 고려해 아시안게임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최종 선택하게 됐다"고 교체 이유를 밝혔다.

대표팀은 18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공식 소집한 뒤 잠실 야구장에서 훈련에 돌입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